

뉴미디어와 사회변동

W.Russell Neuman 저

전석호역

나남신서·415

뉴미디어와 사회변동

W.Russell Neuman 저

전석호 역



ISBN 89-300-3415-2

남신서-415

뉴미디어와 사회변동

W. Russell Neuman 저

전석호 역

NANAM
남출판

나남신서 415

뉴미디어와 사회변동

차

래

역자 서문 / 7

저자 서문 /13

서론

- 1. 후기산업사회의 향방 29
- 2. 후기산업사회론에 대한 재고찰 32
- 3. 뉴미디어의 사회적 영향 35
- 4. Pool과 시간의 화살논리 37
- 5. 대중사회 이론의 쇠퇴 43
- 6. 이 책의 중심주제 45
- 7. 분석전략 48

제 1 장 커뮤니케이션 혁명의 두 가지 이론

- 1. 대중사회 이론과 선전의 위험 63
- 2. 민주주의 이론과 정치다원주의의 전망 78
- 3. 균형측면에서 고찰 93

제 2 장 전자통합의 논리

1. 네트워크의 본질 102

2. 디지털 전자기술의 본질 104

3. 기술적 동인 108

4. 보편적인 광대역 디지털 네트워크 140

5. 사회정치적 세력으로서 커뮤니케이션 혁명 142

제 3 장 미디어 수용의 심리학

1. 또 다른 측면의 이야기 148

2. 무기력한 수용자 150

3. 역설적 선전 157

4.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대한 균형잡힌 평가 160

5. 미디어 이용습관 163

6. 맥루한의 예감 176

7. 상호작용 미디어 188

8. 설득 연구분야의 전망 202

제 4 장 수용자 분화

1. 분화 가설 206

2. 관심사의 다양성 211

3. 대중사회에서 다양성 221

제 5 장 매스미디어의 정치경제학

1. 미국 커뮤니케이션 산업의 구조 225

2. 집중 곡선 236

3. 획일화를 향한 경제적 압력 246

4. 뉴미디어의 경제학 264

제 6 장 대중 수용자의 미래

1. 기술효과에 대한 이론 275

2. 다원주의와 대중사회 이론 278

3. 심각한 전환기 285

참고 문헌 291

찾아보기 307

서론

'대중매체'라든지 '대중소비자'라는 낱말은 아마도 역사 속에 퇴색되어 갈 것이다. 되돌아보면 지금도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신문, 텔레비전, 잡지 등의 대중적 속성도 산업화의 초기 진입시점에 떠오르던 원시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진기한 산물로 간주되고 있다. 현대 국가사회는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양한 수천, 수억의 인구로 에워싸여 있으며 매년 수십 억 달러의 매출규모에 이르는 산업 생산고를 상세히 깨달아 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속성들이 곧 대중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첨단 기술이나 방송, 전자 네트워크 등의 전자 기술에 의해 종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커다란 변화를 맞고 있다. 우리는 바야흐로 산업사회의 최고 정점에 이르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추진체에 의해서 사회적, 정치적인 전환이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는 현재 진행중인 치열한 산업 활동 이면에 작용하는 인간조직이나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을 참

여민주주의라는 속성에 접목시켜 생각해 볼 만도 하다. 우리는 기술 발전의 사회적 영향이라는 것이 특성상 진보위주의 일방향적이기보다는 순환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렇다면 후기산업사회에서 새로운 면모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보다 작은 규모의 조직기관이나 전통적 규범의 시민활동 참여를 부흥시켜 주는 자각적인 기술활용 때문일지도 모른다. 텔레비전 시청자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대중잡지의 판매가 감소된다는 것은 곧 개인적인 기술처리로 해결되는 각종 사무자동화 기술이라든지 쌍방향 영상전화통신, 그리고 컴퓨터 전자우편 등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아마도 면직공장이나 조립대열이 산업사회를 상징했듯이 앞으로는 퍼스널 컴퓨터가 탈산업사회 또는 정보사회를 상징하게 될 것이다.

‘후기산업사회’라는 용어와 그와 관련된 사회변동 이론은 1960년대에 발표되기 시작하여 《후기산업사회의 도래》라는 저서에서 그 절정에 이른 Daniel Bell의 연구와 깊이 관련된다. 후기산업사회론은 아직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다. 이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 그리고 후기산업사회로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을 포괄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개념은 그 이전의 시대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의미를 담게 된다. 후기산업사회의 출현을 단정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정보시대’(information age) 또는 ‘커뮤니케이션 시대’(communications age)라는 용어가 후기산업사회라는 개념과 혼용되어 불리고 있는 이유도 그러한 배경 때문이다.

1. 후기산업사회의 향방

진화적인 측면에서, 후기산업사회의 개념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 (1) 제조업과 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비스 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
- (2)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관리, 전문, 기술직에 종사하는 인력 증가.
- (3) 교육, 이론적 지식, 연구, 정보의 관리, 커뮤니케이션 기술 등이 사회와 경제에서 점차적으로 중심된 위치 확보.
- (4) 자동화, 특히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와 인공지능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자동화를 통한 경제적 풍요와 물질 생산성 증가.
- (5) 소규모 조직의 컴퓨터 생산관리에 따라 더 많은 소비촉진, 그리고 보다 개별화되어 가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기업운영의 유연성 증가.
- (6) 지위와 성취의 척도로서 물질적인 부의 축적보다는 개개인의 자아실현에 더 가치를 두는 새로운 탈유물론적 가치관의 형성.

후기산업사회에 대한 대부분의 분석은 고용, 제조기술과 생산구조, 그리고 경제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범위한 추세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정치적, 문화적 삶에 미치는 이러한 시대적 특성에 관한 연구 가운데 Huntington(1974, p.164)은 후기산업사회의 열다섯 가지 특성을 검토해 보면서 그 중에 단지 한 가지 요소만이 정치분야와 약간의 관련을 맺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후기산업사회에 대한 문제들을 다룬 연구들은 대부분이 미래에 대

하여 낙관적 시각을 펼친다. Masuda(1980)는 개인주의에 따른 시민들이 그들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고, 각자의 관심분야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편리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증가될 것을 강조한다. 산업사회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폐해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고, 새로운 개인주의가 사회 저변에 깔리게 되면, 그에 따른 생활양식의 다양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Masuda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중심현상을 그려낸다. 첫째, 인간을 수작업과 사무실에서 해방시키는 전산화된 산업 자동화, 둘째 사회 구성원에 의한 자발적 공동체의 출현과 반드시 지리적으로 가깝지 않아도 그 공동체가 새로운 전자 미디어를 통하여 그들만의 특별한 관심사를 나눌 수 있는 밀접한 관계 유지, 셋째 직업에서 성취욕보다는 개인적으로 설정한 삶의 목표와 특별한 사적 관심사를 얼마나 성취했느냐로 평가되는 자아실현이 그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사회는 20세기의 모든 기술적 산물과 물질적 풍요를 그대로 지닌 채 도시화가 진척되기 이전, 한가로운 전원생활 속에서 개인적인 향유와 자기위안을 얻었던 18세기처럼 매혹적인 이상형인 것이다.

Martin Ernst(1981)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인간심리의 근본적인 변화와 연결시켜 역사적인 시나리오를 구성해낸다. Maslow의 유명한 인간욕구단계설을 근거로 삼은 논문에서, Ernst는 최근 역사에서 기초산업 생산이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후기산업사회에서 고차원의 욕구가 점차 강조되는 상황과 대비시킨다. 그것은 심각한 경기후퇴나 정치적 변동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시장구조에서 정보, 문화, 오락 분야의 지속적 성장과 확산으로 나타난다. 이런 측면에서 Ernst의 이론은 '풍요의 이론'으로 부를 수 있다. 고소득층의 가구일수록 자기존중과 자아실현을 위한 여가활용에 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현상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Huntington은 덜 낙관적이다. 그는 후기산업사회의 정치가 그 이전에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온 정치적 여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예를 들어 그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강한 인상과 매력을 지닌 인물의 이미지 형성을 가지고 일반대중의 주의를 끌게 하며, 파편화된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무기력과 정치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도 뒤따를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Huntington은 후기산업사회에서 변화가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나고, 시대적인 연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는 정치체도의 정착이 어려워질 것을 예견한 것이다. 만약 이런 면이 현실화된다면, 이전의 시대와 다름없이 각 집단이나 조직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대항세력을 키워나갈 것이다. 이를테면 부패의 만연, 학생소요, 노동자 파업, 폭도의 시위, 군사반란 등이 그것이다. 더욱이 이전의 역사에서 시대적인 전환기 때에 소매상인이나 중소기업가와 같은 중산계층이 그랬듯이, 쇠퇴기에 있으면서도 새로운 정보경제에 통합되지 못한 사회계층이 경제구조의 변화를 되돌리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로서 급진주의자들의 움직임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Huntington은 주장한다. 동시에 행정관료와 미디어 사이의 대립과 같은 새로운 사회갈등이 정치적인 마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끝으로 Huntington은, 앞으로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사회변동 추세에 따라 새로이 등장한 권력계층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하는 구계층의 복고성향에 맞서 심각한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회전체의 통합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경고한다.

2. 후기산업사회론에 대한 재고찰

후기산업사회론은 광범위한 의미의 역사적인 개념으로서, 그 이론이 기반하고 있는 광범위하면서도 지적인 토대로 인하여 학술적 지지와 공감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원래 이 개념이 상징하는 명료성과 흡입력은 남발된 인용으로 인하여 많이 희미해졌으며, 비판적인 견해에 직면하여 그 확신에 찬 입장에서 약간은 후퇴하는 것으로 보인다. Bell과 그 외 다른 학자들의 주장대로 많은 예견된 부분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반적인 변화의 과정들이 보다 점진적이고, 복잡하며 사회적 손익에서도 상당히 불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기산업사회론은 단순히 관련된 변화의 추세들을 파악하려고 하던 초기의 경향에서 격변기에 나타나는 사회세력들간의 균형유지 문제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이전에 비해 더욱 완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어떠한 측면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은 급격한 변화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보다 장기순환과정 속에서 보다 정확히 그 특징이 밝혀질 것이다(Miles, 1985). 많은 전문가들은 서비스 분야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더라도 제조업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Cohen & Zysman, 1987). 선진 산업경제는 유럽, 북미, 일본과 같은 선진 경제권에 국한된 것이다. 따라서 경제의 세계화한 세계인구의 대다수가 속해 있는 국가들의 현상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또한 기술의 발전이 때로는 노동의 탈속련화와 이중경제(*dual economy*)라는 상황을 몰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정치경제적 분쟁이 극단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Berger & Piore, 1980). 사회경제적 변화의 가치에 대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현대사회는 탈유물론

(*Postmaterialism*)이란 용어로 설명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다차원의 양상을 보여준다(Inglehart, 1977)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들 대부분이 서구식 시장경제와 정치제도를 그들의 체제에 채택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이 있지만, 이데올로기의 종언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직 속단적이다(Lipset, 1985). 산업화 단계에서 자동화가 제조업에서 이루어낸 생산성의 향상과 같은 성과를 후기산업사회에서 첨단 정보기술이 그 같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본 가정조차 극히 제한된 실험을 통해서 지지를 받아 왔을 뿐이다(Jonscher, 1983, 1986). 더욱이 포스트모던 운동은 하나로 통합되는 지구촌 문화의 출현이라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정체성의 유지, 그리고 목적의식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Kariel, 1989; Giddens, 1990).

‘후기산업사회’란 용어가 ‘지식경제’나 ‘정보사회’와 같은 비슷한 개념의 출현으로 약간은 빛이 바래졌을지라도 그 중심논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Kuhn의 견해를 빌려 설명하자면 패러다임은 변화했고,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는 세력들간의 관계와 많은 난제들 가운데에서 변화를 이끄는 추진력들이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그러한 난제를 풀어내는 데 앞으로 밝혀져야 할 한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것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린 채 그 원래의 윤곽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제도권과 사회영역들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기술, 관습, 제도들의 본질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정치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매스미디어의 중요한 변화가 일상생활의 민주정치화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정치 엘리트와 대중 사이에 벌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복

합적인 역학적 기능을 이해하려고 했던 선행연구(Newman, 1986)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조사연구 자료에 의존했던 초기 연구자료에 비해 본 연구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역사적인 측면에서 연구의 초점이 전보다 넓어졌다. 이 서론의 목적은 무대를 설치하고 소도구들을 적절히 배치하여 영웅과 악당의 위치와 그 움직임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른바 영웅이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최소한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키고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과정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힘을 지칭한다. 그러나 악당은 말 그대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지적 다양성과 개방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잠식하려고 하는 사회, 경제, 정치적 세력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만약 영웅의 개념으로서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이 있으려면, 그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사회의 제도권에 맞서 기술이 가져다 주는 혜택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이 책의 중심주제와 분석전략, 그리고 연구가 근거하고 있는 사회·정치 이론들이 전개될 것이다. 더 나아가 미래를 비관론적인 시각에서, 기술이 현재의 인간 가치관과 제도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기술 그 자체로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기술결정론적인 연구들과 이 연구 간의 차이를 밝히면서 이 글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할 것이다.

3. 뉴미디어의 사회적 영향

미래에 예견되는 뉴미디어의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Toffler(1980)나 Naisbitt(1982)와 같이 잘 알려진 저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왔다. 이 두 사람의 학자는 현 시대의 중요한 변화와 경쟁 속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뉴미디어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해 수많은 학술연구가 행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과 평가들은 때로는 미완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그 논리에서 모순으로 가득 차 있기까지 하다. 여러 분야에서 주장해 온 대로 뉴미디어는,

- (1) 감당하기 힘든 만큼의 엄청난 정보의 홍수가 개인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 (2) 미국 정치체제에서 정당의 중요성을 감소시켰다.
- (3) 점차 공익적이고 대중적인 미디어를 보다 전문적이고 개별화된 소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디어로 대체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
- (4) 컴퓨터를 이용하여 알아보기 쉬운 입체적 영상과 개인별 학습 방법에 부응한 교수법이 가능해지면서 교육과 교수법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 (5) 정부와 보안기관들이 시민들의 미디어 행위를 포함해서 전자 미디어를 통한 대화와 은행거래 및 신용카드와 같은 시민들의 경제행위를 더욱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 (6) 거대 미디어 복합기업에만 뉴스와 정보를 의존해 오던 일반국민

의 상황을 변화시켰다.

- (7) 광고주의 영향이 존재하는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상업 커뮤니케이션 체제로부터 각자의 수용자 개인별로 그들이 원하는 특별한 정보나 프로그램에 대해 직접 돈을 지불하는 새로운 수용자 중심체제로 변화되었다.
- (8) 장거리 커뮤니케이션 비용과 시간지연을 줄여 세계적인 범위의 지구촌 커뮤니케이션 체제를 창출해냈다.
- (9) 대통령이 더욱 부각되고 미디어 의제를 교묘하게 조작하는 정보원이 더 많아짐으로써 그 결과, 미국 정치에서 권력의 축이 행정부 쪽으로 이동했다.
- (10) 위성과 비디오 카세트를 통한 미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급격한 보급을 통하여 세계가 미국 문화제국주의의 위협을 받게 되고 상업적인 오락물에 대한 미국의 전세계 시장장악은 미국 경제의 국제적 영향력을 증대시켰다.
- (11)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동시 팩시밀리와 즉각적인 전달체계의 빠른 성장으로 정보교신 및 대인간 교신이 확장되었다.
- (12) 현금즉시결제 (*instant cash*)와 전화구매와 같은 새롭고 경제적인 상거래 방법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큰 기대를 갖게 해주었다.
- (13)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컴퓨터 장비를 구입할 여력이 없는 새로운 '정보빈곤계층' (*Information underclass*)을 탄생시켰다.
- (14) 정보기술 특히, 첨단 네트워크를 다루고 통제할 수 있는 행정관료들과 전문기술자들로 이루어진 강력한 새 집단을 출현시켰다.
- (15) 원시부족사회의 마을모임 이래 재현되기 어려웠던 전 국민 참여 방식의 민주주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현대사회의 미디어 환경에서 무언가 중요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해도, 인간교류의 기술 내에서 이러한 변화가 갖는 사회적 의미는 매우 다양하고 모순된 추측을 낳게 한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점은 광범위한 범위의 후기산업사회론에 대한 분석과 아직도 확신되지 않은 미디어 역할에 대한 가설 사이에서 역사적 시각에 바탕한 연결점을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위의 가정들이 각기 그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 연구들은 미디어 제도와 미디어 기술의 상당히 다른 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효과적인 실험분석을 하려면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접근방식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가정들은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이와 같이 각기 다른 연구방법과 분석수준에서 도출된 결과물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된 평가기준으로서 바라볼 수 있을까? 또한 그러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중심주제를 발견할 수는 있는 것인가?

4. Pool 과 시간의 화살 논리

다음에서 전개되는 Pool의 논제는 이론적인 틀을 갖춘 것이라기보다는 그 동안 연구(1978; 1983 b.c)의 과정에서 관찰하고 숙고되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Pool은 뉴미디어와 관련된 문제들을 일관성 있는 이론으로 만들기 이전에 작고했다. 그의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지구상에서 인간의 삶을 시간의 축에 맞추어 놓고 살펴보면 대규모 사회제도, 거대 도시, 매스미디어와 같은 창조물들은 상당히 최근에 역사의 전면에서 등장한 것이었다. 지난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의 역사를 하루 24시간으로 축약시켜 보았을 때 언어 (*speech*)의 출현(약 B.C. 100,000년 전에 발생)은 저녁 9시 30분에 비로

소 이루어졌다. 글은 자정이 되기 8분 전에, 전신·전화·축음기·라디오·텔레비전을 이용한 언어와 문자의 전자식 저장과 그 전달능력은 막 하루 해가 지려고 하는 시점에서야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이러한 문명 이기들의 발명가들이 12시 11초 전이 되어서야 비로소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대의 디지털 전자공학과 컴퓨터는 자정 바로 2초 전에 그 화려한 첫발을 내딛게 되었던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역사상 첫번째 매스미디어도 Gutenberg가 인쇄활자를 발명함으로써 시작되었다기보다는 1830년대의 증기추진식 실린더 인쇄기가 발명된 후 나타날 수 있었고, 이후 90년간 그 기계는 신문과 잡지를 중심으로 한 저렴한 인쇄물을 양산했다. 그리고 당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문맹의 상태를 벗어나고 있었던 일반대중들은 그러한 기술발전의 혜택을 입었다. 1920년대 초반에는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전파매체가 기존의 인쇄매체가 독주하던 매스미디어의 영역에 새로이 합류하여 경쟁하게 된다. 전국을 연결하는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공동문화가 형성되었고 매일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계기가 이루어졌다. 최초의 문명을 이루었던 메소포타미아와 극동, 그리스, 로마시대,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 산업시대로 넘어오기까지 이렇게 권력 중심으로부터 전 대중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을 여과 없이 직접적으로 닿게 하던 시대는 결코 없었다.

서적,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을 주위 환경의 일부로 당연히 여겨온 우리로서는 그와 같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대두를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서 역사적인 대이변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네트워크와 이용자 중심의 수평적이면서 면대면이 가능한 커뮤니케이션의 확산은 커뮤니케이션이 처음 발생했을 때의 역동적인 상태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 만들고 있다. 사상의 공개장,

개인적인 의사소통, 해석의 공간으로서 커뮤니케이션의 형태가 매스 커뮤니케이션 시대의 방식보다는 산업사회 이전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에 더 흡사한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산업사회의 풍요와 다원성, 그리고 국제적인 풍모를 지닌 대도시 문화가 자치적인 체제로서의 지방자치 또는 공동체 중심의 사회로 돌아간다는 것은 매력 있고 낭만적인 미래사회상으로 비쳐진다. 미디어가 매개되지 않은 직접적인 언어교류라는 원시적 기술에 의존했던 시대에는 한정된 필기력이나 파피루스의 비용부담, 청중대상 연설에서 육성의 전달한계 등의 요인 때문에 의사소통이 제한적 형태로 이루어졌다(Innis, 1951). 짧은 역사의 매스 커뮤니케이션 시대에는 광고경제의 인위적인 장벽과 한정된 전자 스펙트럼이란 요인들로 인하여 공중의 목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었다. 매스미디어의 이러한 본질적인 속성으로 인하여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나 충분한 의미해석, 부연설명, 집단토론 등이 불가능했다. 어쩔 수 없이 커뮤니케이션의 양상은 일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고, 정치인·언론인·특정분야의 전문가와 같은 사회 상층부의 구성원이 나머지 시민들에게 수직적으로 정보와 의견 등을 내려보내는 형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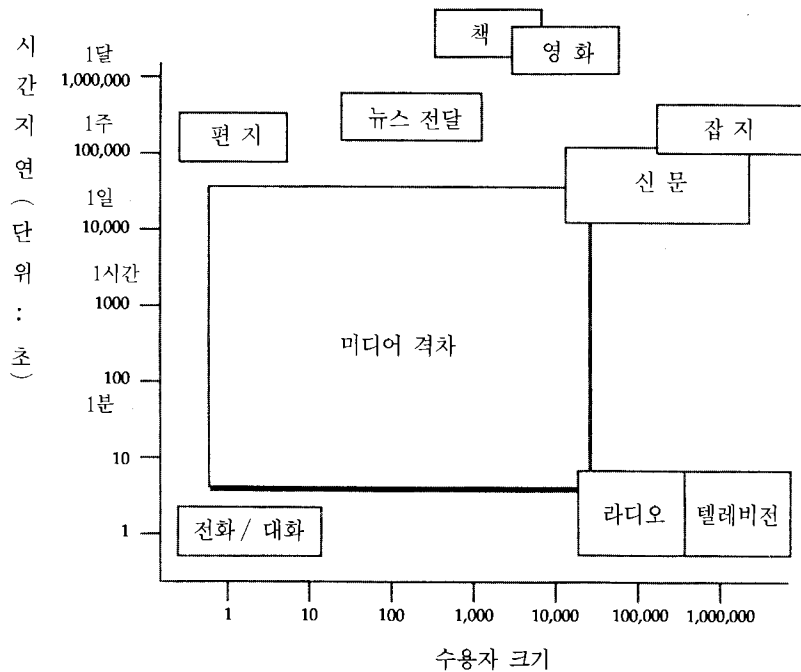
그러나 이와 같이 이용자가 정보를 교정, 보완, 복사하여 발송 또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상의 교환에 일정한 역할을 해내는 이용자 중심의 수평적 미디어가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기존 매스미디어의 형태를 더 중요하게 보완해낼 수 있게 한다. 현대의 중앙집중식 수직적 커뮤니케이션과 분화된 형태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은 대중의 문화적 기호와 에너지를 전반적으로 공적인 문제에 반영시킴으로써 그들 사이에 균형적인 역할분담을 이루고 있다.

Pool은 뉴미디어로 인하여 이전의 활발했던 정치행태를 다시 회귀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거의 시대를 회상해 본다면 사상을 유포하고 미국의 독립정신을 고양시키는 데 공헌한 1770년대의 통신위원회는 현대의 정치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지녔다. 즉, 마을공회라든가 de Tocqueville(1856)의 문헌에서 다루어졌던 교회·학교·작업장·이웃 마을 등을 하나의 공동체로서 유지시켰던 정체성에 기반을 둔 미국문화의 다양성과 계약의 전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본 우정성(郵政省)의 Tomita(1980)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 인해 제기된 미래에 대한 전망을 도표를 통해 묘사하고 있다. 그는 현재의 지배적인 매스미디어(그리고 보다 제한된 범위의 대인간 미디어)를 수용자 규모와 커뮤니케이션 즉시성(immediacy)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였는데 그의 모델은 <그림 1>에 잘 나타나 있다.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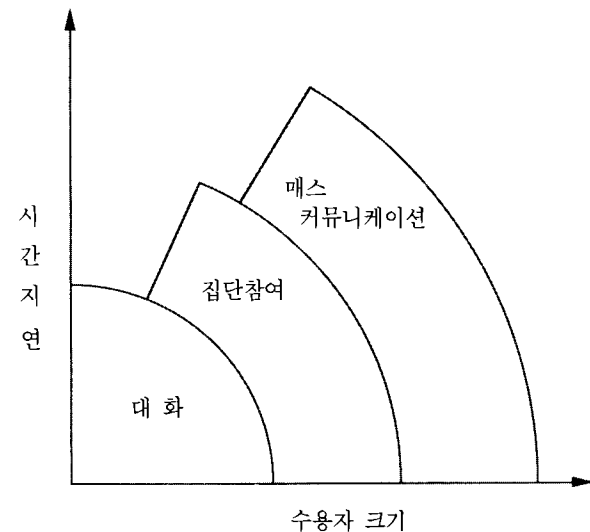
<그림 1> Tomita의 미디어 격차 공간(1980)



로축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수용자 규모에 따른 미디어 분류를 보여주며, 세로축은 정보가 생성되어 수신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의 차이에 따른 미디어 분류이다. 그는 <그림 1>에서 뜻밖에도 소규모 이익집단이나 지역 공동체 정도의 중간규모적 사회단위에서 개인미디어와 매스미디어의 사이에 어느 정도의 격차가 생기는 영역을 발견했다. 분명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 격차를 알아채지 못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커뮤니케이션 흐름의 미묘한 유형들이 공공문제와 정치현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행과 기대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된다. 이 '미디어 격차'는 소집단 커뮤니케이션과 특정 이익집단 커뮤니케이션이 화상전화, 컴퓨터 토론, 전자적으로 여과된 뉴스, 지역 케이블TV 등 몇 가지 뉴미디어의 강점을 활용하여 그들의 영역을 정교하게 구축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2>는 Tomita 모델을 약간 변형하여 미디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그림 2> Tomita 모델의 재구성



선보다는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에 그 초점을 맞추어 재구성한 것이다. <그림 2>를 통해 뉴미디어의 고유한 특징이 드러나는 데 관련된 사람 수와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소요시간은 각 참여자들이 상대방의 말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의미 있고 생생한 미디어로서 안정된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미국에서는 시민에 의한 지역의사 결정기구로서 마을공회가 중요한 역사적 상징이었다. 그러나 시민이 모든 문제에 참여하길 원하지 않으며, 정해진 일정에 따라 모두 참여할 수도 없고, 지역문제를 넘어선 다른 문제에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원하던 때도 많았다.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전자 네트워크로 인하여 자신의 관심사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동호인 집단과 같은 새로운 조직 형태가 앞으로 사회에서 그 활동영역이 넓어질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될 것이다. 기술변화와 사회규범의 관계설정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사회의 공적 체계와 개인의 사적 생활영역을 자연스럽게 이을 수 있는 새로운 사회유형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Habermas, 1989).

Pool의 논리가 그가 스스로 우려했듯이(1977) 낭만적인 보수주의라거나 19세기 정치의 복귀를 부르짖는 것이라는 식으로 잘못 이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좀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시간의 화살'(time's arrow)이란 개념을 빌리고자 한다(Hartz, 1955: Huntington, 1968). 중소도시나 농업사회에서 존재하던 기술이나 생활양식, 가치관 등을 오늘에 되살려서 다시금 새로운 산업, 정치, 문화를 이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예컨대 화살이 날아가는 동안 갑자기 그 방향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이용자 중심의 소규모 미디어가 앞으로 수년간 사회에서 그 비중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한 세기 반에 걸쳐 사회문화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온 매스미디어에 기반한 정치와

문화의 흔적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되어 갈 것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과정을 정밀하게 탐구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의해서만 결정되진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테크놀로지로 인해 역지로 변화를 끌어낼 수도 없다. 새 기술은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해준다. 단 우리가 그 기술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했을 때에 한해서이다. Pool의 논리는 이러한 논의를 부각시켜 후기산업사회 논쟁과의 연관을 밝히는 데 유용하다. 대중의 미래에 대한 중심문제는 균형(balance)의 문제로서 변화하는 대중의 다양성과 다원주의에 상치되는 집중된 중앙권력기구의 세력과 가치관 측면 사이에서 공감대 형성의 균형을 말하는 것이다.

5. 대중사회 이론의 쇠퇴

만약 혼잡한 사회과학 분야 가운데, 커뮤니케이션 제도가 어떻게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론이 정립되었더라면 우리의 학문적인 기초로서 중요하게 기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이론이 존재하는가?

대답은 '존재한다'이다. 그런데 그러한 이론은 존재하지만,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출현한 것으로 지금에 와서는 거의 잊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대중사회 이론과 이와 유사한 이론들—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체계이론, 다원주의 이론, 정치발전 이론 등—에 주목해 본다. 대중사회 이론의 붕괴는 마치 패러다임 전환과 과학진보의 역학관계를 주장한 Tomas Kuhn의 새로운 모형제시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과학혁명에 관한 Kuhn의 주장에 따르면, 만약 한 이론이 쇠퇴하여 쓸모 없게 되고 주목을 끌지 못하면 새 세대의 지지를 받는 새

이론이 나타나 그 이론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미디어와 민주정치에 대한 새로운 이론은 대중사회론 이후에 출현하지 않았고, 보다 현실적이며 역사적 타당성을 갖는 이론도 현실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지금까지 대중사회 이론과 다원주의 이론은 완전치 못한 이론이라는 이유로 지적되어 왔으나, 이러한 지적은 어느 사회과학 이론에도 대등하게 적용되어지는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중사회 이론과 다원주의 이론은 본질 면에서 지나치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비판이 뒤따르기도 했지만, 이는 한 부분을 전체(whole)로 간주하는 오판이었다고 본다. 비록 일부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이러한 비판적 전망들을 수용하더라도, 나는 그 비판들에 관한 본능적인 다른 무엇인가 작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적이다. 또한 좌익파의 입장에서는 대중의 묵인, 허위의식, 저항운동의 약점을 위한 설명으로 대중사회 이론의 많은 요소들을 수용해 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들 중 어느 것도 대중사회 이론의 쇠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분명한 것은, 학문적 쇠퇴와 학문적 유행의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논의들로 단순히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즉, Gunnell(1983)은 이론적 이동(*diaspora*)에 주목했고, Bell(1973)은 그러한 이론들이 분석의 틀로서는 시대에 뒤지고 쓸모 없는 경향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1973).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쇠퇴는 매스 미디어와 민주주의의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1940년대에서 1960년대 사이에 제기되었던 연구모형과 연구가설들이 아직도 그 적합성을 잃지 않았다는 데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중사회론의 쇠퇴는 이해할 만하다. 히틀러와 유럽 파시즘의 환상은 정치과정을 전복시키려는 매카시즘, 네오파시즘, 다양한 매스미디

어, 대중선동 같은 폐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사라졌다. 그러나 참으로 이상한 점은, 30년이 지난 후 이데올로기적 다극화를 약화시킨다고 예견된 요인들이 일본과 유럽으로 흘러들어가 장기적 산업계획 및 조정을 위한 국가관료주의로 발전되었다는 점이다. 반면에, 구소련과 동구 유럽은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개방체제로 전환하였다. 대중사회 이론은 즉각적인 사건들을 설명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사회적 추세를 설명하는 데 더욱 적합했던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중앙집권정부와 공익적 다원주의 사이의 긴장에 대한 논쟁으로부터 사회적, 정치적인 제도에 미치는 신기술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분석적 차원을 도출하고자 한다. 아마도 Kuhn의 모델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발견이라는 통합된 순환과정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6. 이 책의 중심주제

1) 전자식 통합의 영향

새로운 전자 미디어의 지적 정수는 모든 미디어가 서로 연결된다는 데 있다. 우리는 대인 커뮤니케이션과 매스 커뮤니케이션 사이의 구별 및 공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사적인 커뮤니케이션 사이의 구별을 없애줄 전자식 텍스트 커뮤니케이션의 보편적인 네트워크의 도래를 목격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 가운데는 이러한 뉴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정치, 사회적인 재난이 닥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간주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빅 브러더'(Big brother)의 환상이란, 시민이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일에

서부터 마이크로 오븐으로 요리를 준비하면서 디지털 전화로 대화를 하는 일까지, 전자적으로 모든 것이 감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앙집권 정부가 어떤 정보와 오락이 공중에게 접근 가능한가를 탐색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며, 이는 유럽의 인쇄 산업시대 동안 왕정의 통제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사실화되고 있다.

뉴미디어의 특별한 특징은 이들이 쉽게 수직적(중앙집권 정부와 대중 사이의 보다 전통적인 관계에서)으로뿐만 아니라 수평적(개인과 집단 간의)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비록 어떤 정치문화가 수평적인 연결을 제한하고 억제하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커뮤니케이션 양의 폭발적인 성장과 개인화된 컴퓨터 암호체계의 용이성은 그러한 제한의 작용을 점차적으로 어렵게 만들 것이다. 수평적인 연결을 억제하려는 시도는 시민들이 결코 다른 시민이 아닌, 오직 정부관료 기구만이 연결된 전화 네트워크를 설계·제작하는 것과 흡사하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권위적 정치문화가 아닌 이상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더구나 채널의 확장과 비용절감 그리고 증가하는 디지털 네트워크와 컴퓨터에 기초한 기술적 능력 때문에, 개인은 점차적으로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구하는 힘과 다각적인 정보원으로부터 타당성을 확신하는 힘을 부여받고 있다. 단일 통합체제를 향한 전자적 통합(*electronic integration*)의 궁극적인 결과는 역설적으로 지적 다원주의와 개인화된 커뮤니케이션의 통제력일 것이다.

2) 대중사회의 대항세력

두 번째 주제는 비록 변화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그 특성과 기능 면에서는 중요할지 몰라도, 최종적인 절대효과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대립되는 세 가지 세력을 상정할 수 있다. 첫째는 개인주의와 다원주의를 주도하는 신기술 및 네트워크의 추진력이다. 이 '기술적인 추진력'은 그 효과를 억제하고 재구조화하려는 대항세력과 마주치게 될 것이다. 대항세력의 하나는 미국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설명하는 정치경제학이다. 이는 출판과 방송산업에서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대량생산되는 사회의 공통분모적 대중 미디어에 대해 강한 대항압력이 발생된다는 점이다. 생산과 판매촉진 내에서 작동하는 그러한 규모의 경제논리는 신기술의 출현으로 변화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새로운 뉴미디어의 기술이 그 효과를 발휘하는데 장애가 되는 두 번째 요소는 대중심리학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수용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미디어를 접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다소 산만하면서도 오락지향적인 심리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면, 개인들이 가정에서 전자식 정보검색을 위해 복잡한 상호작용 미디어를 제공받을 때, 항상 열광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나는 비록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이 극단적으로 변할지라도, 대중심리와 공중 커뮤니케이션의 상업경제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신문, 텔레비전 그리고 출판물의 대부분은 일반적인 흥미와 오락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 넓은 의미에서 정치와 전문적인 문제들 또는 지역공동체의 이익들은 공중 커뮤니케이션의 과잉 흐름 가운데에서 아주 작은 일부분을 차지할 뿐이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뉴미디어가 출현하더라도 갑작스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즉, 개인 컴퓨터와 광섬유가 하룻밤 사이에 사

회생활과 정치문화를 재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물론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새로운 사회제도의 상호작용을 통한 점진적 변화는 갑작스럽거나 극적이지는 않더라도 중요한 것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7. 분석 전략

사회변동을 분석하는 저명한 연구들은 대개 학자들이 잘못 오해하거나 지나쳐 버린 현상들을 결정적 단일 메커니즘으로 증명하는 연구들이었다. 나는 이러한 지적 전통의 특성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결정론적 관점의 단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원론자'(monis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일원적 연구가 이 분야의 연구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원론적 전통에 반대하는 관점에 기반을 두기로 한다.

1) 일원론의 마력

지난 세기 동안 일원론적 이론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대표적 인 이론은 자본주의 정치경제의 진화(그리고 예견된 쇠퇴)에 대한 Karl Marx의 분석이다. Marx의 중요한 메커니즘은 생산수단의 소유에 관한 문제이고, 그의 역사분석과 미래추세에 대한 예견은 일원론적이고 결정론적인 분석이었다. Marx의 이론에는 초기 자본주의 귀족세력처럼 공산당 기구도 중앙집권적으로 자기 보존적 정치력을 행사할지 모른다는 다소 혼란스럽고 복잡한 요소들이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일원론의 전통하에서 Marx의 이론은 Darhendorf(1959)와 같은 학자에

의해 확장되고 수정되어 왔지만, 이들 학자들은 Marx의 고유한 이론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고 강력한 주목을 받지도 못했다. 그러나 확장된 관점과 다양한 설명변인들을 포함하는 원인적 구조의 분석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일원론은 이론적인 지지기반을 잃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Marx 이외에 다른 종류의 일원론을 주장한 학자들도 많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지적 대부인 Adam Smith는 맑시즘 전통에는 반대하였지만, 그 역시 사회적 결핍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시장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유사한 일원론을 제시하였다. 마찬가지로 Fried도 유아적 성욕에 관심을 갖고서 유아적 성욕이 성인의 심리역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이 연구를 통해 그는 심리학 이론 가운데 중심위치를 차지하였던 것이다.

위의 학자들은 상당히 영향력 있고, 창의적이며 통찰력 있는 분석가들이었다. 그들은 각자 새로운 사상을 제발하였고, 그 이론적 한계를 검증하기 위한 수많은 연구에서 자신들의 사상을 정점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두드러진 학자들이었다. 물론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그 학자들은 호소력 있는 사례를 제시해야 했다. 위대한 학자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많은 학생과 교사들 중에서, 입증되고 수정된 이론이 아니라 미완성된 연구와 자신들이 불러일으킨 신랄한 비판에만 관심을 모으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 어쩌면 그들에게 한 이론의 구성 요소에 대한 증거들을 주의 깊게 측정하여 추적하기보다는, 다른 분야의 일원론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쟁을 따르는 것이 훨씬 흥미로웠을지도 모른다. Kuhn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과학적 진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사회학적 절차인 것이다.

2) 균형 이론

사회학적 이론과는 대조적인 스타일로서 복합적인 사회영역간의 상호작용과 그에 개입되는 다중변인(*multiple variables*)들을 강조하는 이론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이론들은 일원론도 결정론도 아니며, 대항세력과 중북세력들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다양한 수단과 목적을 가진 복잡한 목적론을 추구한다. 나는 이러한 분석의 특성을 가리켜 '균형이론'(*balance theory*)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다원민주주의 이론은 균형이론이 지향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Dahl, Coser, Huntington, Lipset, Moore 등은 균형을 위한 대항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엘리트 집단과 이익집단 간의 경쟁에서 공개적이고 역동적인 균형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의 연방주의자(*Federalist*)들의 문건에서는 미국 정치사에서 세력의 균형적 접근 방식(*balance-of-powers approach*)에 대한 고전적 서술이 제시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Spengler, Toynbee 그리고 보다 최근의 Paul Kennedy가 이러한 전통에 속하는 이론가들이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균형을 잃은 세력들은 정치적 중심부와 군사적·경제적 지배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학의 기능주의적 분석도 체제유지 대 사회변화의 역학관계에서 균형과 분열의 세력들을 모형화하는 데 유사한 역할을 발휘한다(Alexander, 1985).

일원론자와 균형이론자 간의 이러한 대조는 필자의 분석전략을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비판적 요소가 어떻게 미디어와 공중생활의 미래를 결정할 것인가에 관한 일원론자의 논의는, 비록 단일성 때문에 오해를 받더라도, 대중의 미래에 대한 다변인적 이론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충분한 가치를 주고 있다. 이 연구를 위한 출발점은 신기술의 추진력이다. 그러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나는 일원론적 접근을 선택하는 위험을 무릅쓰고자 한다. 그 위험이란 기술을 원인적 요소로 간주하는 강박관념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과연 기술결정론에 빠지지 않고도 지속적으로 기술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가능한가?

3) 기술결정론의 전망

누군가를 기술결정론자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그를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그것은 꿈과 이데올로기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개인의 동기, 제도적 이기주의 그리고 비의도적 결실들로 구성된 현실세계에 눈이 먼 사람을 연상시킨다. Marx는 수력에서 증기력의 전환이 자본주의를 '발생시켰다'(*caused*)는 사적 결정론의 도식 때문에 기술 결정론자로 간주될 수도 있다(Gilpin, 1979). 그러나 이러한 결정론적 도식은 대부분의 사회학과 정치경제학의 초기 이론에 함축되어 있었으며 Durkheim, Weber, Tönnies 등의 학자들도 물리적 진화와 병행하는 사회진화 이론을 세우려고 시도하였던 이론가라는 점에서 Marx와 유사하다. 사회진화 이론에서 정의되는 산업혁명이란 복잡한 노동분화에 기초하면서, 전적으로 새롭고 진보된 사회조직 형태를 발생시킨 자극제로 규정된다. 얼마 후에 Ogburn은 기술변화에 뒤늦게 반응하는 사회제도의 지연을 의미하는 '문화지체'(*cultural lag*) 이론을 발전시킨 바 있다.

단일한 결정론의 예는 많이 있다. Czitrom(1982)은 전신의 발명이 모든 시기의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분명한 사실적 언급에 기초한다. 즉, 만약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점을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면, 왜 그들이 싸울 필요가 있겠는가? 또한 Moyer는 전화가 도시를 '발생시켰다'고 언급한다

(Pool, 1977). 반면에 Slack(1984, p.56)은 전화가 미국의 가족구조를 파괴시켰다고 지적한다. Ithiel de Sola Pool은 1876년에서 1940년까지의 기간에 일어났던 전화의 발전에 관한 문헌과 결정론적 도식에 대한 흥미 있는 재고찰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186가지 원인이 될 수 있는 명제를 정리했는데, 여기에는 전화가 인간의 외로움을 없애주고 전원생활을 재건하고 고층빌딩의 건설을 가능하게 하고, 수직적 계급을 민주화시킨다는 원인들이 포함되어 있다(Pool, 1983a).

그러나 이러한 일원론적 이론들이 올바르게 전망하기 위해서는 반대 이론간의 상호비교가 필요하다. 비록 사회변화를 가져온 모든 원인적 에너지가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지만, 그 원인적 근거가 문화적·경제적 영역에 있다고 확신하는 학자들도 있기 때문이다.

(1) 문화 결정론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이 혼돈과 불안정을 경험하였던 지난 200년간 왜 미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정치체제로서 번영할 수 있었던가? 증기력보다는 자립정신과 같은 종교적 가치들이 자본주의 제도의 진화와 더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는 뜻인가? 거대한 경제적 확장, 보편화된 자유교육, 그리고 직업훈련 같은 긍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빈곤과 실업이 존속되고 있는가? 이러한 의문들은 기술적, 경제적인 답변보다는 문화적인 답변을 요구한다. 비록 사실에 대해서 폭 넓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개인의 가치와 신념이 평상적인 원리(*causal primacy*)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회이론가들을 '문화 결정론자'로 규정지을 수 있다.

미국 정치체제의 역사적 독특성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란 용어로 집약된다. 그러므로 산업시대의 기술들이 서구 전통에서 서로 다르게 운영되어 왔다는 어떠한 논쟁거리도 찾을 수 없다. 논쟁이 있다면 식민지 시대의 가치와 독특

한 문화적 역사, 그리고 잇따른 자발적인 이민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문화적인 면에서 찾을 수 있다(Hartz, 1955; Huntington, 1981).

종교적 가치들과 자본주의 간의 연결이라는 주제는 Weber로부터 유래한다. 그는 Marx 이론과의 논쟁으로 모든 삶을 보냈다고 알려지는데, 그것은 Weber가 Marx 이론과는 상반되는, 가치와 문화가 결정적 원리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Weber에 따르면 산업노동자들의 가치관과 문화적인 토대 위에서 산업기술들이 발명된 것이다. 즉, 증기력이 노동과 자본의 축적을 발생시킨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빈곤에 관한 문화적 논의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경제적 불평등이란 논의와 유사하다. 만약 켈빈주의적 가치가 산업 자본주의의 성장을 촉진시킨다면, 과연 어떤 믿음과 문화적 전통이 자본주의의 성장을 억제시켰겠는가? Lewis와 Liebow는 선진국들에 관해 연구했고, Pye, Pool, Lerner, Huntington 그리고 Almond는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이들 모두가 문화와 제도적 원리를 강조한다.

(2) 경제 결정론

기술과 문화에 관한 논의를 경제적 이윤에서 비롯된 단지 인공적이고 합성적 조건들로 간주하는 분석가들이 있다. 예를 들면, Barrington Moore는 가치관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경제적 이윤의 차이가 만들어진다는 견해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문화적 가치라는 용어 속에서 행동을 설명하는 일은 순환적 논리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정착된 귀족주의가 상업적인 기업에 저항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귀족주의가 과거에 저항했고, 이러한 전통의 전수자라는 것만을 기술한다면, 무엇이 귀족주의가 상업적인 기업을 적대시 하도록 만들었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즉, 문

제는 어떠한 과거 및 현재의 경험이 그러한 사고방식을 만들고 유지 시키는지를 밝혀내는 일이다(Moore, 1966, p. 486).

물론 Marx는 유물론적 결정론자로 간주된다. 유물론적 결정론은 경제적 이익이 우선적이며 정치역사 속에서 결정된다. 이러한 전망은 대항적 논의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 유물론은 독특한 패러다임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패러다임간의 혼란스러운 영역 속에서 새로운 사고와 전망들이 출현하는 것이다.

4) 상호작용 효과의 탐색

다소 과장된 감도 없지 않았지만 우리는 효과에 대한 논의를 강조한 과거 연구자들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결국에는 사회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균형적이고 다변인적인 모형을 채택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리고 각각의 변인에 의미의 비중치를 신중히 설정해야만 한다. 어떤 신기술의 진화와 이용문제는 단순히 기술의 속성 혹은 기술을 창출한 경제적, 문화적 체제의 속성에서 기인하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했던 결과로서 반영되는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분석은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 훨씬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심리학적·제도적·문화적·경제적 요소들이 뒤얽혀 작용하는, 다양한 수준의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Pool은 기술의 사회적 효과를 이해하기 위한 접근방식에서 '연성결정론'(soft determinism)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그는, 기술이란 사용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원인화살은 두 가지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새로이 생성되는 하나의 기술환경에 반응해서 파생되는

제도권은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얼마 후에는 변화된 기술까지 적지 않게 편승하는 경향이 있다"(1983b, p.5). Pool의 통찰력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미묘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적시성의 중요함과 역사적 시의성을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인식시켜 주기 때문이다.

상호작용 접근은 사회변화와 기술에 대한 추상적 또는 이론적 접근보다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술(technology-in-use)이란 논의에 주목한다. 우리는 기술과 사회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역사적 연구들과 현재까지 지속되는 방대한 연구에서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상호작용 과정의 가장 좋은 예는 소련 정부가 실시한 텔레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접근이다. 음성 커뮤니케이션은 일반적으로 평등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즉, 일반인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은 수직적(시민 대 정부)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수평적(시민 대 시민)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소련의 특유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일반인은 전화목록의 사용이 불가능했다. 물론 정부는 필요로 하는 전화목록을 소유하고 있으며, 정부가 잠재적인 반체제 인사들의 전화도청까지 시도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전화체제는 잘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페레스트로이카가 기술적 커뮤니케이션의 이러한 규범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피는 일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유사한 예는 중국의 유선 라디오 사용에서 찾을 수 있다. 인구의 대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라디오는 유선·증폭기·스피커 시스템만큼이나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공산정권 수립 초기에 설치된 시스템이다. 라디오의 특별한 장점은 다양한 메시지를 방송 스펙트럼의 여러 부분에 실어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방송해야 할 메시지가 단 하나였기 때

문에 다양한 채널로 인해 혼선을 일으킬 필요가 없었다. 게다가 중앙 집권 통제에서 유선 시스템은 라디오보다 훨씬 다루기 쉬웠다. 설령 중앙집권식이 아니더라도 유선 시스템은 통제가 가능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주파수가 고정된 라디오를 설계하고 생산했을지도 모른다.

상호작용 접근방식은 기술들의 장점을 인정한다. 기술의 장점과 환경이 상호작용하여 어떤 결과를 생산하는데, 그 결과를 기술의 사회적 이용이라고 한다. 따라서, 결과물도 미리 결정된 것이라기보다 기술과 그것을 둘러싼 환경의 상이한 상호작용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신기술의 도입이 생성되는 시간과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에서, 사람들은 오그번이 처음 제시한 기술적 영향의 문화지체 이론에 대한 Bell의 비평으로 연장된다. 상호작용 과정에서는 실제로 선도(*leads*)와 지체(*lags*)가 있지만, '문화지체'라는 용어는 일방향 원인을 암시한다(Bell, 1973). 우리는 전신, 방송, 반도체의 발명과 같은 신기술의 개발이 그 나름대로의 과학적 논리를 따르고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연구자금의 방향, 설계와 실행의 통제, 신기술의 발전속도 등은 기존의 지배문화의 가치와 속성으로 상당히 제한받게 된다.

기술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가치관의 배제가 있고 없고에 관한 논쟁은 기술과 사회변동에 관한 연구를 진척시키기보다는 지연시켜 왔다. 따라서 그런 논쟁은 '기술 결정론자'라는 명칭과 함께 경시되어 왔다. 인간이 기계에게 선과 악의 속성을 부여하려는 충동은 자연스럽지만, 이것은 분석적 통찰력보다는 시적 허용(*poetic license*)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는 또다시 일원론적 결정론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다. 기술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기술이 갖고 있는 목적과 이용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기술을 금지하거나 파괴

하려는 생각과 기술에 관련된 사회악이 갖고 있는 강한 유혹 때문에, 기술을 악으로 규정하려는 충동도 그만큼 강한 것이다. 러다이트(Luddite) 운동시기부터 현재까지, 모든 미디어가 도덕적으로 금지된 내용을 전달하는 통로로 이용되기 때문에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항자들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들의 논리는 사회적 변동을 이끄는 데 있어서 설득력이 없는 전략이었다.

또한 상호작용 접근방식은 새로운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려는 충동에 대해서도 균형을 제공할 수 있다. 세계 주요신문의 헤드라인에 오 늘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써어 있는 것을 상상해 보자. 그러한 헤드라인은 실제로 세계의 상황을 정확하게 요약한 것일 수 있다. 세계에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는 곳보다 항상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사실, 언론인과 학자 모두는 현상유지 세력과 변화지향 세력을 설명할 때, 균형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Moore, 1966, p. 486). 그러나 언론인들은 불필요한 배경정보를 제공하여 독자들을 지루하게 만들기보다는 최신경향을 취재하도록 훈련받아 왔고, 역사가들은 미국혁명과 남북전쟁 같은 단절된 변화의 시대를 계속 흥미롭게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충동에서 비롯된 미래에 대한 관점은 균형적이지 못하다. 새로운 시대의 베일을 벗기는 사람들의 강한 주장은 관심을 끄는데, 거기에는 마치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작용한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그러한 노력만이 미래에 대한 보다 좋은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5) 방법론에 덧붙이는 말

연구방법론과 연구설계의 선택이 도출되는 연구결론의 유형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가 뉴미디어에 대한 반응을 실험실 연구로 조사한다면, 뉴미디어에 대한 욕구와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대한 결과 변화를 과장되게 측정할 수도 있다. 실험 대상자들은 마지못해 임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연구자들은 실험과 실험참여자들을 다시 계획해야 하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한다. 더구나 대상자를 실험실 통제하에서 각각 한사람씩 조사하기 때문에 사회구조적, 조직적 변인들의 효과를 측정할 수도 없다. 실험실의 인위적 환경은 주의분산이나 상호자극 없이, 주로 실험자극에 대하여 주목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고나 기술이 현실세계에 도입되는 사회적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 실험실의 실험결과가 현장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로 도출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사회상황의 복잡성에서 기인한 현상이 성숙되면, 우리는 손쉽게 그 현상의 단순화된, 인공적인 재생산만을 연구할 수 있다. 반면에, 우리가 주로 현장연구와 역사적 은유에만 의존한다면, 우리는 가장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새로운 현상의 새롭고 단일한 속성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실행된 전략은 메타 분석적 접근(*meta-analytic approach*) 방식이다. 이 방식은 역사적 시기, 방법론, 분석수준에 따라 결과를 종합하거나 평가하는 것이다. 물론 이 전략에도 약점이 있는데, 이는 분석자가 다양한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체계적이고 공정한 증거 선택 없이는 독자들을 확신시키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른 분석수준에서 나온 증거를 측정하고 통합하는 일은 더욱 어렵다. 또한 단일 방법연구가 제공하는 관점과 분석만으로 충

실한 결과에 도달하기도 힘들다. 그러므로 어떤 현상들이 다양하고 방대할 경우에는 메타 분석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사회과학적 접근의 본질은 개인적 연구와 다른 사람에 대한 통합적이고 평가적 노력의 엄격함과 축적된 결과를 이론 속에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정치이론에 대한 최근의 메타 분석적 연구는 과학적 합의가 어떻게 진화되었는가에 대한 통찰력을 추가로 제공한다. Alford와 Friedland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자신의 이론에서 '고유영역'(*home domain*)이라 부르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지적한다. 고유영역이란 이론의 관련성과 정확도를 입증해 주는 결과물과 역사적 사례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맑시스트는 자본주의 제도의 특성과 불가항력적 사회결과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경제적 불평등과 경영진 간의 상호연관된 경영체계라는 고유영역을 연구한다. 또한 다윈주의자는 공적인 자원분배에서 정치적 결정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결정과정'이라는 고유영역을 설정하여 연구한다는 것이다. 각각의 고유영역에서, 어떤 분석가는 대부분 확실한 증거를 쉽게 찾아 연구를 수월하게 하지만, 어떤 분석가는 적절한 탐색의 증거들이 자신의 영역의 분야에 없기 때문에 연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메타 분석적 연구는 여러 고유영역들 간의 연구사례들을 모아서 보다 다양한 작업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